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 학 래
(사회복지임상·교수)
hlcho@kbtus.ac.kr

I. 문제제기

최근에 교통과 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국경을 넘어 이주가 더욱더 자유로워짐에 따라 국가의 경계선과 민족의 개념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노동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고, 결혼이주여성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결혼, 노동, 학업 등을 목적으로 국내로 이주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1980년대 4만 명 수준에서 “2019년 11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243만 명이며, 이 중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은 약 174만 명에 달한다.”¹⁾ 특히 통계청이 집계하고 있는 2018년 우리나라 다문화 가구는 33만 4천 가구에 전체 가

1)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9년 11월호」(법무부, 2019), 13.

구원 수는 100만 8천 명 정도로 총인구 5,136만 명 중 2%를²⁾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구원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15년 등록 센서스 방식으로 해당 항목을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

이런 추세로 볼 때, 한국 사회는 다인종·다민족 상황을 포함하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할 것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이질적인 문화권 간의 접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선주민과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회통합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이런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적 특성을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교육을 시행해 왔다. 즉, 다문화정책으로 2003년 「고용허가제」 제정, 2004년 「국적법」 개정,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2008년 「다문화가정지원법」 제정, 2010년 혼혈인의 현역 병역 이행을 허하는 「병역법」 개정 등을 시행하였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다문화 사회의 정착을 시도하였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국민 다문화수용성 수준은 거의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³⁾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에 대한 수용도는 약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0년과 비교해서 2015년에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이 감소했고, 다른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증가했다.”⁴⁾ 이런 결과는 외형적으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는 한국 사회의 현실과는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증가

2) 통계청,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통계청, 2019), 1.

3) 김이선 외 6인,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2019), 61.

4) 윤인진, “다문화소수자에 대한 국민인식의 지형과 변화,” 「디아스포라연구」 제10권 제1호 (2016): 149.

하고 있다.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중·고등학생에 집중되거나 특정 요인만을 고려함으로써 통합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조사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필요하다.”⁵⁾는 지적도 있다. 특히 발달 단계상 후기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다문화 사회의 주역이므로 이들의 다문화수용성 함양은 매우 중요하다.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은 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전개될 다문화정책의 방향성과 중요성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기”⁶⁾ 때문이다. 이처럼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이 중요하지만, 기독교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다문화수용성의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⁷⁾ 다문화수용성은 다문화 사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전제조건인 동시에 미래 다문화 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는 개인 변인, 사회적 관계 변인, 다문화 관련 변인 등으로 폭넓게 설정하여 어떤 변인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성별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도 밝히고자 한다. 이런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제기되는 연구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5) 차슬기, 변해원, “우리나라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9권 제3호 (2018): 215.

6) 김태완 외 3인, “다문화수용성 척도의 타당성 연구: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제11권 제1호 (2016): 61.

7) 유지은, “기독교 청년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 분석,” 「대학과 선교」 제37집 (2018): 243-76.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둘째, 성별에 따라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이런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수용성의 개념

다문화란 용어는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과 대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이 용어는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다양한 문화, 언어, 전통을 지닌 개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할 가능성을 말할 때는 긍정적이지만,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갈등이나 위기를 봉합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사용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⁸⁾ 또한 다문화 사회란 한 사회 내에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의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과 환경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식, 즉 다문화수용성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⁹⁾는 점에서 다문화수용성은 한국 사회를 더욱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하는데 토대가 되는 기본 자질이다.

다양한 하위차원으로 구성된 복합적 개념인 다문화수용성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수용성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

8) 박홍순,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대학생 선교,” 「대학과 선교」 제16집 (2009): 50.

9) C. Bennett,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6th ed.). (Boston, MA: Allyn and Bacon, 2007), 34.

화와 서로 다른 인종, 민족, 문화 배경을 가진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로 정의된다. 즉, 다문화수용성은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다문화 지향적 태도이며, 우리 문화만이 옳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열린 사고이며,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인 이주민을 경쟁자가 아니라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태도”¹⁰⁾를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수용성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다양성은 나와 다른 여러 집단의 문화나 가치를 우리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거나 혹은 그들 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 나아가 차별적 행동을 하지 않는 성향을 뜻한다.”¹¹⁾ 둘째, “관계성은 이주민 집단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정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통합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다.”¹²⁾ 셋째, “보편성은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출신국가 등 특정한 요인별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하는 것이다.”¹³⁾ 이런 차원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다문화수용성이란 다른 인종, 민족, 문화를 편견 없이 동등하게 인정하며, 이주민을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관련 변인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변인들을 분석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로 개인 변인, 사회적 관계 변인, 다문화 경험 관련 변인 등을 설정하였다. 또

10) 윤인진, 송영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3권 1호 (2011): 154.

11) 안상수 외 4인,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여성가족부, 2012), 54.

12) Ibid.

13) Ibid., 55.

한 통제변수로 성별, 학업성적, 생활수준 등을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성별 분석도 시행하고자 한다.

1) 개인 변인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타인, 사회 차원을 고려하여 각각 자기효능감, 공감능력, 공동체의식 등을 선정하였다. 먼저 자기효능감이란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믿음, 즉 자신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주위 사람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발달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다문화수용성도 높을 수밖에 없다. 선행연구에서도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자기 결정성, 시간관리 능력 및 삶과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자기조절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¹⁴⁾ 즉,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¹⁵⁾ 이처럼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은 타인과 사회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여 다문화수용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며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공감능력은 상호작용에서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공유하는 정서적 반응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감능력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이며, 사회적 관계를 맺는 기본적인 태도이다. 실제로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과 “공감능력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다문화수용성을 유의미하게

14) 박혜숙, 원미순, “대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과 관련 변인 탐색,” 「교육심리연구」 24(2) (2010): 320.

15) 남윤정, 박성희,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인지, 정의, 행동 차원의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9권 제15호 (2019): 52.

예측하였다. 이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대학생이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여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¹⁶⁾

마지막으로 공동체의식이란 “구성원들의 소속감,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동시에 자신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느낌, 구성원들의 욕구가 함께 하는 헌신적인 노력을 통하여 충족된다는 공유된 믿음 혹은 헌신과 같이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심리적인 특성”¹⁷⁾ 포함한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은 일상생활에서 사회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되거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문화수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주위의 어려운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봉사하거나 기부를 하는 사람일수록 인종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일 개연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독교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도 “공동체의식은 다문화수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¹⁸⁾

2) 사회적 관계 변인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부모와의 접촉 빈도와 상호작용은 줄어들지만, 여전히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부모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인성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부모와의 관계 형성 및 유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¹⁹⁾이다. 이처럼 역할 모델로서 부모

16) 박지윤, 박은민, “대학생의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거리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8권 제20호 (2018): 234.

17) D. W. McMillan & D. M. Chavis,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 Psychology* vol. 14, no. 1 (1986): 9-14.

18) 유지은, “기독교 청년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 분석,” 265.

19) 어성연, 김지연, “대학생활적응의 영향요인에 관한 : 인터넷 몰입 수준, 친구관계,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0권 2호 (2015): 70.

는 대학생 자녀와 친밀한 애착관계의 형성을 통해 이후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성장한 청소년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²⁰⁾ 이처럼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는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요인이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의 의미를 발견한다. 특히 사회적 관계가 더욱 확대되는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대인관계는 학교에서 만난 친구와 교수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먼저 직업세계로 들어가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는 친구와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친구와의 관계는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의 문제와 관점을 이해하며, 사회적 기술의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다문화수용성을 향상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친구관계가 긍정적이거나 원만할수록 다문화수용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¹⁾ 이처럼 다문화수용성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므로 친구관계가 좋은 대학생일수록 다문화수용성도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이 자신의 진로선택을 위해 전공과 관련된 공부를 주로 하는 학교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대학생은 전공 공부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교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관계의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교수는 대학생들의 학습활동과 진로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멘토이기도 하다. 이처럼 교수는 대학생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존재이므로 교수와의 관계는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20) 김동진,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분석,” 『시민교육연구』 제51권 1호 (2019): 16.

21) 고흥월, “개인, 부모, 또래 변인이 대학 신입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9권 제5호 (2019): 688.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볼 수 있다.

3) 다문화 경험 관련 변인

다문화 경험은 다양한 문화와 접촉하거나 그 문화의 여러 요소와 상호 작용하는 경험을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대학생들이 다문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다문화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극복하고,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면서 자신의 문화와 소통과 공존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이나 관련 활동은 정책적 개입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대학생의 다문화 경험은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다문화교육 경험은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²⁾

또한 다문화 관련 봉사활동이나 미디어 시청은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다문화 대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다문화수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³⁾ 또한 “주변에 이주민이 없는 이들의 다문화수용성이 가장 낮지만, 주변에 친구나 이웃 등 이주민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의 다문화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⁴⁾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 간접 접촉 경험에서 전반적으로 이주민의 긍정적 이미지의 대중매체를 접할수록 다문화수용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⁵⁾

22) 정명희, 박외병, “대학생의 다문화교육경험이 사회적 거리감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충북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7(2) (2014): 99.

23) 김이선 외 6인,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109.

24) Ibid., 103.

25) Ibid., 99.

4) 통제변수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별, 학업성적, 주관적 생활수준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먼저 성별의 경우, 다문화수용성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다문화수용성 지수 전체 점수에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세 번의 조사시점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⁶⁾ 이처럼 남자는 여자와 비교하여 다른 문화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문화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⁷⁾ 반면에 여자는 남자보다 타인의 상황을 배려하는 성향이 높고 관계 지향적인 측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수용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성별을 제시하였다.”²⁸⁾ 이처럼 다문화수용성에서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이 부분의 연구가 누락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교육환경에서 학업성적은 지적 발달의 결과적 측면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학업성적은 한국 사회 내 사회적 이동과 성취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서 작용하는데,”²⁹⁾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⁰⁾ 또한 중요한 미시적 환경인 가정의 생활수준도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26) Ibid., 65.

27) 양정남 외 4인, “자기효능감, 사회복지용호태도가 사회복지전공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교육」 제16집 (2011): 39.

28) 이병식, 이인서, “대학생 다문화 태도에 대한 다양성 경험과 대학의 구조적 다양성 효과 분석,” 「교육학연구」 제57권 제2호 (2019): 211.

29) 조하래, “기독교소년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복음과 실천」 제63집 (2019 봄): 322.

30) 박혜숙, 원미순, “대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과 관련 변인 탐색,” 317.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다문화수용성 지수의 점수도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¹⁾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대상자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침례신학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다. 신학 계열과 비신학 계열을 비슷하게 표집하기 위해 집락임의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9년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5일 동안 시행하였다. 설문지의 응답 요령과 주의할 점을 교육 받은 면접원이 해당 과목 교수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다. 면접원은 설문 전에 앞서 연구목적, 주의사항, 연구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안내하였고,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만 시행하였다. 설문지 응답 방법은 학생들이 직접 응답하는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응답한 후에 직접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런 절차를 통해 315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지만,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9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306명의 자료를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다문화수용성 척도는 안상수 등³²⁾이 사용한 35

31) 김이선 외 6인,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77.

32) 안상수 외 4인,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230-2.

개 문항을 합산한 다음 문항 수로 나누어 평균값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식 6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6점)를 적용하여 조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 즉 다문화사회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수용성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53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종속변수인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그 중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개인 변인, 사회적 관계 변인, 다문화 경험 변인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각 독립변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개인 변인

개인 변인으로 자기효능감, 공감능력, 공동체의식 등을 선정하였다. 먼저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이영광과 지은구³³⁾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 12개 중에서 6개 문항을 선정하여 합산한 다음 문항 수로 나누어 평균값으로 사용하였다. 리커트식 5점 척도이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88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김용석과 송진희³⁴⁾가 개발한 대인관계·사회적 공감척도 중에서 대인관계적 공감 19 문항 중에서 3개 문

33) 이영광, 지은구, “자기효능감척도 개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6권 1호 (2017): 21-2.

34) 김용석, 송진희, “대인관계·사회적 공감 척도의 개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권 제3호 (2018): 158.

항을 수정하여 합산한 다음 문항 수로 나누어 평균값으로 사용하였다. 리커트식 5점 척도이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84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김지경 등³⁵⁾이 사용한 6개 문항 중에서 3개 문항을 선정하여 합산한 다음 문항 수로 나누어 평균값으로 사용하였다. 리커트식 5점 척도이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852로 나타났다.

② 사회적 관계 변인

대학생이 주로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 변인으로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수와의 관계를 포함하였다. 먼저 부모와의 관계는 부모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미현³⁶⁾이 사용한 6개 문항 중에서 선정한 3개 문항을 합산한 다음 문항 수로 나누어 평균값으로 사용하였다. 리커트식 5점 척도이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하며,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910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친구와의 관계는 친구와의 소통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김지경 등³⁷⁾이 사용한 5개 문항 중에서 선정한 3개 문항을 합산한 다음 문항 수로 나누어 평균값으로 사용하였다. 리커트식 5점 척도이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와의 관계가 좋음을 의미하며,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87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수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김지경 등³⁸⁾이 사용한 5개

35) 김지경 외 3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221.

36) 한미현,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6), 122.

37) 김지경 외 3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220.

중에서 3개 문항을 수정하여 합산한 다음 문항 수로 나누어 평균값으로 사용하였다. 리커트식 5점 척도이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와의 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하며,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824로 나타났다.

③ 다문화 경험 변인

다문화 경험 변인으로는 안상수 등³⁹⁾이 사용한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 다문화 봉사활동 경험, 다문화 대중매체 경험 등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은 다문화 교육과 수업 경험 등 2개 문항을 합산한 다음 문항 수로 나누어 평균값으로 사용하였다. 리커트식 5점 척도이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하며,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833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문화 봉사활동 경험은 다문화 친구와 관련 자원봉사 경험 등 2개 문항을 합산한 다음 문항 수로 나누어 평균값으로 사용하였다. 리커트식 5점 척도이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관련 봉사활동 경험이 많음을 의미하며,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798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대중매체 경험은 방송에서 긍정적인 이주민 모습과 관련 프로그램 시청 등 2개 문항을 합산한 다음 문항 수로 나누어 평균값으로 사용하였다. 리커트식 5점 척도이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다문화 매체 시청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하며,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704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3) 통제변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종속변수인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학업성적, 주관적 생활수준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

38) Ibid., 216.

39) 안상수 외 4인,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232.

다. 먼저 성별은 남자는 1, 여자는 0으로 하는 더미변수로 코딩하여 변수 값으로 사용하였다. 학업성적에 대한 평가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때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응답을 사용하였다. 상위권(5점)부터 하위권(1점)의 범위인 5점 척도로 조사한 문항의 응답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주관적 생활수준도 매우 여유가 있음(5점)부터 매우 어려운 수준(1점)의 범위인 5점 척도로 조사한 문항의 응답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각 변인의 부호화 과정을 거쳐 SPSS/PC(Ver.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도구를 구성하는 각 문항의 동질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를 측정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시행하였고, 주요 변인들은 기술적 통계분석을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셋째, 성별과 학년별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분산분석(ANOVA)을 시행하였다. 넷째, 회귀분석에 앞서 종속변수인 다문화수용성과 관련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적률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는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섯째,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에서는 여자가 52.9%(162명), 남자는 47.1%(144명)로 여자가 약간 더 많이 표집되었다. 학년은 1학년 24.2%(74명), 2학년 26.8%(82명), 3학년 49.0%(150명)로 3학년이 연구대상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평가한 자신의 학업성적을 살펴보면, 중상위권 이상이 36.6%(112명), 중위권이 42.2%(129명), 중하위권 이하가 21.2%(65명)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관적으로 평가한 자기 가정의 생활수준으로 여유가 있는 중상층 이상은 14.4%(44명), 중간 정도는 36.3%(111명),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한 중하층 이하는 49.3%(151명)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백분율(%)	사례수
성별	남자	47.1	144
	여자	52.9	162
학년	1학년	24.2	74
	2학년	26.8	82
	3학년	49.0	150
학업성적	중상 이상	36.6	112
	중	42.2	129
	중하 이하	21.2	65
생활수준	중상층 이상	14.4	44
	중층	36.3	111
	중하층 이하	49.3	151
계		100.0	306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2>와 같다. 종속 변수인 다문화수용성은 3.668로 나타나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은 중간(3.500) 이상의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위 차원 중에서는 다양성(3.679)이 가장 높고, 보편성(3.669), 관계성(3.652) 순으로 나타났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인 학업성적(3.167)은 중간(3.00)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관적 생활수준(2.484)은 중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대상자들은 자신의 주관적 생활수준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 중에서 개인 변인으로 자기효능감(3.331), 공감능력(3.410), 공동체의식(3.313) 등 모든 변인은 중간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 변인 중에서 부모와의 관계(3.639), 친구와의 관계(3.870), 교수와의 관계(3.314) 등 고려한 모든 변인은 중간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경험 변인 중에서 다문화 교육 경험(2.694), 다문화 활동 경험(2.559), 다문화 대중매체 경험(2.812) 등 모든 변인은 중간 수준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볼 때, 독립변수 중에서 사회적 관계 변인이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범위	
종속변수	다문화수용성	3,668	.736	1,86	5,11	1~6	
	다양성	3,679	.783	1,93	5,13	1~6	
	관계성	3,652	.802	1,73	5,27		
	보편성	3,669	.817	1,56	5,78		
통제변수	학업성적	3,167	.888	1,00	5,00	1~5	
	생활수준	2,484	.955	1,00	5,00	1~5	
독립변수	개인변인	자기효능감	3,331	.605	2,00	4,50	1~5
		공감능력	3,410	.549	1,80	5,00	1~5
		공동체의식	3,313	.596	2,00	4,67	1~5
	사회적관계변인	부모와의 관계	3,639	.747	2,00	5,00	1~5
		친구와의 관계	3,870	.622	1,33	5,00	1~5
		교수와의 관계	3,314	.544	1,33	5,00	1~5
	다문화경험변인	다문화 교육	2,694	.794	1,00	5,00	1~5
		다문화 경험	2,559	.959	1,00	5,00	1~5
		다문화 대중매체	2,812	.872	1,00	5,00	1~5

3. 기독교대학생의 특성별 다문화수용성 차이

기독교대학생의 성별과 학년별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독립표본 t검증과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다문화수용성에서 여학생의 평균(3.674)이 남학생(3.660)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다문화수용성에서 3학년(3.691)이 가장 높고, 이어서 2학년(3.678), 1학년(3.608)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변수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다문화 수용성	남학생	144	3.660	.777	N,S
	여학생	162	3.674	.699	
	1학년	74	3.608	.674	N,S
	2학년	82	3.678	.824	
	3학년	150	3.691	.716	

4.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고려한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에서 거의 모든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속변수인 다문화수용성은 개인 변인으로 고려한 자기효능감($r=.715, p<.001$), 공감능력($r=.673, p<.001$), 공동체의식($r=.717, p<.001$) 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 변인으로 고려한 부모와의 관계($r=.514, p<.001$), 친구와의 관계($r=.343, p<.001$), 교수와의 관계($r=.355, p<.001$) 등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경험 변인으로 고려한 다문화교육 경험($r=.355, p<.001$), 다문화 봉사경험($r=.493, p<.001$), 다문화 매체경험($r=.322, p<.001$) 등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결과로 볼 때,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N=306)

구분	① 다문화 수용성	② 자기 효능감	③ 공감 능력	④ 공동체 의식	⑤ 부모와 의 관계	⑥ 친구와 의 관계	⑦ 교수와 의 관계	⑧ 다문화 교육경험	⑨ 다문화 봉사경험	⑩ 다문화 매체경험
①	-									
②	.715**	-								
③	.673**	.625**	-							
④	.717**	.645**	.641**	-						
⑤	.514**	.485**	.504**	.525**	-					
⑥	.343**	.212**	.321**	.279**	.323**	-				
⑦	.355**	.349**	.269**	.333**	.304**	.325**	-			
⑧	.355**	.267**	.240**	.294**	.199**	.238**	.156**	-		
⑨	.493**	.434**	.374**	.348**	.252**	.121**	.205**	.333**	-	
⑩	.322**	.217**	.328**	.312**	.180**	.199**	.113**	.259**	.208**	-

*p<.01, **p<.001

5. 각 변인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에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⁴⁰⁾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분산팽창계수 값이 2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40)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거나($r > .80$ 또는 $.90$) 분산팽창계수 값이 10 이상일 때, 회귀분석 결과를 왜곡시켜 특정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적 효과를 측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김두섭, 강남준, 「회귀분석: 기초와 응용」(서울: 나남출판, 2000), 210-4.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관련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준회귀계수(β) 값을 같이 제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1단계에서 통제변수로 설정한 성별, 학업성적, 주관적 생활수준을 투입하였다. 이들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 적합성을 지니며($F=8.221$, $p<.001$),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변량의 7.5%를 설명하였다. 통제변수인 학업성적($\beta=.240$)과 주관적 생활수준($\beta=.125$)은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성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는 1단계에서 투입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중 개인 변인을 추가하였다. 이들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 적합성을 지니며($F=96.979$, $p<.001$),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변량의 66.1%를 설명하였다. 통제변수만 투입한 1단계 모델과 비교하여 추가로 개인 변인을 투입한 2단계 모델은 1단계보다 58.6%의 유의한 설명력의 향상이 있었다. 개인 변인으로 설정한 자기효능감($\beta=.339$), 공감능력($\beta=.225$), 공동체의식($\beta=.338$) 등은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대적인 비중에서 개인 변인이 다문화수용성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기독교대학생들은 자신의 성, 학업성적, 주관적 생활수준 등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내면화하고 동조하는 개인적 역량인 자기효능감, 공감능력, 공동체의식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에 차이를 보인다.

3단계는 2단계에서 투입한 모든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추가로 사회적 관계 변인을 투입하였다. 이들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 적합성을 지니며($F=67.451$, $p<.001$),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변량의 67.2%를 설명하였다. 사회적 관계 변인은 2단계보다 1.1%의 유의한 설명력의 향상이 있었고, 친구와의 관계($\beta=.091$)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beta=.329$), 공감능력($\beta=.192$), 공동체의식($\beta=.308$)

등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단계는 3단계에 투입한 모든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다문화 경험 변인을 추가하였다. 이들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 적합성을 지니며($F=56.305$, $p<.001$),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변량의 69.8%를 설명하였다. 다문화 관련 변인은 3단계보다 2.6%의 유의미한 설명력의 향상이 있었고, 다문화 봉사활동 경험($\beta=.143$)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4단계에 투입한 모든 변인 중에서 자기효능감($\beta=.283$)과 공동체의식($\beta=.282$)은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또한 공감능력($\beta=.163$)과 친구와의 관계($\beta=.081$) 등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기독교대학생 중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다문화 봉사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영향력 분석 (N=306)

종속변수	다문화수용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β (B)	β (B)	β (B)	β (B)	
통제변수	성별(남성=1)	-.020(-.029)	-.022(-.032)	-.016(-.023)	-.010(-.015)	
	학업성적	.240(.199)***	.066(.055)	.067(.055)	.054(.044)	
	생활수준	.125(.096)*	.059(.045)	.042(.032)	.033(.025)	
독립변수	개인 변인	자기효능감		.339(.393)***	.329(.381)***	.283(.327)***
		공감능력		.225(.302)***	.192(.257)***	.163(.219)***
		공동체의식		.338(.417)***	.308(.380)***	.282(.349)***
	사회적 관계 변인	부모와의 관계			.048(.047)	.050(.049)
		친구와의 관계			.091(.107)*	.081(.095)*
		교수와의 관계			.027(.037)	.022(.030)
	다문화 경험 변인	다문화 교육경험				.060(.056)
		다문화 봉사경험				.143(.110)***
		다문화 매체경험				.038(.032)
상수		2,843	-.299	-.673	-.682	
R ²		.075	.661	.672	.698	
adjusted R ²		.066	.654	.662	.685	
R ² 변화량		-	.586	.011	.026	
F		8,221***	96,979***	67,451***	56,305***	

*p<.05, **p<.01, ***p<.001

6. 성별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영향 요인

성별에 따라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남자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1단계에서 통제변수로 설정한 성별, 학업성적, 주관적 생활수준을 투입하였다. 이들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 적합성을 지니며(F=5.289, p<.01), 남자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변량의 7.0%를 설명하였다. 통제변수인 학업성적(β =.220)은 남자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만, 주관적 생활수준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는 1단계에서 투입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중에서 개인 변인을 추가하였다. 이들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 적합성을 지니며($F=54.733$, $p<.001$), 남자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변량의 66.5%를 설명하였다. 통제변수만 투입한 1단계 모델과 비교하여 추가로 개인 변인을 투입한 2단계 모델은 1단계보다 59.5%의 유의미한 설명력의 향상이 있었다. 개인 변인으로 설정한 자기효능감($\beta=.292$), 공감능력($\beta=.270$), 공동체의식($\beta=.339$) 등은 남자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인 학업성적($\beta=.096$)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는 2단계에서 투입한 모든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추가로 사회적 관계 변인을 투입하였다. 이들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 적합성을 지니며($F=34.507$, $p<.001$), 남자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변량의 67.2%를 설명하였다. 사회적 관계 변인은 2단계보다 0.7%의 유의미한 설명력의 향상이 있었고, 고려한 모든 사회적 관계 변인은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만, 개인 변인인 자기효능감($\beta=.247$), 공감능력($\beta=.261$), 공동체의식($\beta=.302$)과 학업성적($\beta=.106$)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단계는 3단계에 투입한 모든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다문화 경험 변인을 추가하였다. 이들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 적합성을 지니며($F=28.929$, $p<.001$), 남자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변량의 70.7%를 설명하였다. 다문화 경험 변인은 3단계보다 3.5%의 유의미한 설명력의 향상이 있었고, 다문화 봉사활동 경험($\beta=.179$)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4단계에 투입한 모든 변인 중에서 공동체의식($\beta=.283$)은 남자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또한 공감능력($\beta=.231$), 자기효능감($\beta=.206$), 학업성적($\beta=.103$) 등도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남자 기독교대학생 중에서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다문화 봉사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남자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영향력 분석 (N=144)

종속변수	다문화수용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beta(B)$	$\beta(B)$	$\beta(B)$	$\beta(B)$	
통제변수	학업성적	.220(.200)**	.104(.095)*	.106(.096)*	.103(.093)*	
	생활수준	.154(.121)	.046(.036)	.032(.025)	.010(.007)	
독립변수	개인 변인	자기효능감		.292(.372)***	.247(.315)**	.206(.263)**
		공감능력		.270(.362)***	.261(.351)***	.231(.311)**
		공동체의식		.339(.419)***	.302(.373)***	.283(.350)***
	사회적 관계 변인	부모와의 관계			.096(.101)	.065(.068)
		친구와의 관계			.017(.020)	.024(.029)
		교수와의 관계			.032(.045)	.027(.037)
	다문화 경험 변인	다문화 교육경험				.059(.064)
		다문화 봉사경험				.179(.141)**
		다문화 매체경험				.023(.021)
상수		2,749	.557	.754	.797	
R ²		.070	.665	.672	.707	
adjusted R ²		.057	.653	.652	.682	
R ² 변화량		-	.595	.007	.035	
F		5,289**	54,733***	34,507***	28,929***	

*p<.05, **p<.01, ***p<.001

다음으로 여자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1단계에서 통제변수로 설정한 성별, 학업성적, 주관적 생활수준 등을 투입하였다. 이들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 적합성을 지니며($F=7.269, p<.01$), 여자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변량의 8.4%를 설명하였다. 통제변수인 학업성적($\beta=.263$)은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만, 주관적 생활수준은 영향을 주지 못했다.

2단계는 1단계에서 투입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중에서 개인 변인을 추가하였다. 이들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 적합성을 지니며($F=58.457, p<.001$), 여자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변량의 65.2%를 설명하였다. 통제변수만 투입한 1단계 모델과 비교하여 추가로 개인 변인을 투입한 2단계 모델은 1단계보다 56.8%의 유의미한 설명력의 향상이 있었다. 개인 변인으로 설정한 자기효능감($\beta=.370$), 공감능력($\beta=.187$), 공동체의식($\beta=.343$) 등은 여자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는 2단계에서 투입한 모든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추가로 사회적 관계 변인을 투입하였다. 이들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 적합성을 지니며($F=41.933, p<.001$), 여자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변량의 68.7%를 설명하였다. 사회적 관계 변인은 2단계보다 3.5%의 유의미한 설명력의 향상이 있었고, 사회적 관계 변인 중에서 친구와의 관계($\beta=.186$)만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 변인인 자기효능감($\beta=.396$)과 공동체의식($\beta=.321$) 등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단계는 3단계에 투입한 모든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다문화 경험 변인을 추가하였다. 이들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 적합성을 지니며($F=32.262, p<.001$), 여자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변량의 70.3%를 설명하였다. 다문화 경험 변인은 3단계보다 1.6%의 유의미한 설명력의 향상이 있었고, 다문화 봉사활동 경험($\beta=.110$)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4단계에 투입한 모든 변인 중에서 자기효능

감($\beta=.352$)은 여자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또한 공동체의식($\beta=.301$)과 친구와의 관계($\beta=.165$) 등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기독교대학생 중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다문화 봉사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여자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영향력 분석 (N=162)

종속변수		다문화수용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beta(B)$	$\beta(B)$	$\beta(B)$	$\beta(B)$
통제변수		학업성적	.263(.202)**	.035(.027)	.028(.021)	.009(.007)
		생활수준	.094(.071)	.074(.056)	.060(.045)	.060(.045)
독립 변수	개인 변인	자기효능감		.370(.415)***	.396(.444)***	.352(.395)***
		공감능력		.187(.252)**	.110(.147)	.086(.116)
		공동체의식		.343(.424)***	.321(.397)***	.301(.372)***
	사회적 관계 변인	부모와의 관계			.019(.018)	.038(.035)
		친구와의 관계			.186(.214)***	.165(.190)**
		교수와의 관계			.024(.031)	.019(.025)
	다문화 경험 변인	다문화 교육경험				.063(.052)
		다문화 봉사경험				.110(.082)*
		다문화 매체경험				.030(.023)
상수			2,838	.222	.817	.779
R ²			.084	.652	.687	.703
adjusted R ²			.072	.641	.670	.681
R ² 변화량			-	.568	.035	.016
F			7,269**	58,457***	41,933***	32,262***

*p<.05, **p<.01,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는 개인 변인, 사회적 관계 변인, 다문화 경험 변인 등을 설정하여 어떤 변인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성별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자기효능감, 공동체의식, 공감능력, 다문화 활동 경험, 친구와의 관계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효능감과 공동체의식은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는 선행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⁴¹⁾⁴²⁾ 이처럼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 공감능력, 공동체의식과 같은 개인 변인, 친구와의 관계 및 다문화 봉사활동 경험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성별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 않았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남자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에서 공동체의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는 선행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⁴³⁾ 또한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다문화 봉사활동 경험, 학업 성적 등도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셋째, 여자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이런 결과는 선행 연구

41) 남윤정, 박성희,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인지, 정의, 행동 차원의 차이,” 56.

42) 유지은, “기독교 청년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 분석,” 265.

43) Ibid.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⁴⁴⁾ 하지만 이런 결과는 기독교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결과에서 여자 기독교청년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남자 기독교청년에게만 나타났다는 결과와 상반된다. “이는 남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되고 성취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이 남자에게 더 적합하다고 여기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⁴⁵⁾ 주장하였다. 하지만 여자 기독교대학생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극복하면서 일상생활과 다문화 환경에서도 능동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자기효능감 다음으로 공동체의식, 친구와의 관계, 다문화 봉사활동 경험 등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볼 때,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 영향 변인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자기효능감과 공동체의식과 같은 개인 변인과 다문화 봉사활동 경험 등은 전체 기독교대학생과 모든 성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은 주요 성과로 볼 수 있다. 특히 다문화 봉사활동 경험이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관점에서 단순 접촉이나 교육보다는 다문화 배경을 가진 친구를 사귀거나 다문화 관련 봉사활동을 통해 친밀한 교류 경험을 계속하는 것이 다문화수용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자기효능감이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런 결과는 교회나 학교에서 기독교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프로그램에 자

44) 김인숙, 이수진, “남·여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공감능력, 다문화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24권 제11호 (2017): 21.

45) 유지은, “기독교 청년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 분석,” 268.

신감, 자기조절, 과제 난이도 선호 등의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기독교대학생이 도전적인 상황에서 문제 해결과 낯선 사람이나 환경과의 더 나은 적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감능력은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교회나 학교에서 기독교대학생들의 공감능력을 향상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감능력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타인의 관점으로 상대방의 정서를 느끼고 수용하며, 다른 문화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⁴⁶⁾ 따라서 공감능력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수용성이 향상된 기독교대학생들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능동적이며 개방적으로 대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공동체의식은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교회나 학교에서 기독교대학생의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한 나눔교육이나 다문화수용성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을 단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하게 대하는(레 19:33-34) 자세를 지니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요인으로는 친구관계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기독교대학생들 대상으로 긍정적인 친구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시행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다문화 관련 봉사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수용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섯째, 성별에 따라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영향 요인에서 차이

46) 박지윤, 박은민, “대학생의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거리감의 매개효과,” 234.

가 나타난 것을 고려하여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 관련 봉사활동 경험이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볼 때, 기독교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문화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이론 중심이 아니라 현장체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주로 특정한 변인만을 다룬 것과는 다르게 개인, 사회적 관계, 다문화 관련 변인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들을 폭넓게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독교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별로 비교하여 연구를 시행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지만, 침례신학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중에서 집락임의표집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전체 기독교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생의 주관적 편향이 반영될 수 있는 자기 보고식 결과에 근거한 양적 연구이므로 향후 질적 연구도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후속 연구에서는 기독교대학생과 비기독교대학생 간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의 비교와 다문화수용성의 하위 차원을 심층적으로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참고자료

1. 단행본

- 김두섭, 강남준. 「회귀분석: 기초와 응용」. 서울: 나남출판, 2000.
- 김이선 외 6인.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여성가족부, 2019.
- 김지경 외 3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11월호」. 법무부, 2019.
- 안상수 외 4인.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2012.
- 통계청. 「2018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보도자료)」. 통계청, 2019.
- Bennett, C.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6th ed.). Boston, MA: Allyn and Bacon (2007).

2. 정기간행물

- 고홍월. “개인, 부모, 또래 변인이 대학 신입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9권 제5호 (2019): 675-93.
- 김동진.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중단분석.” 『시민교육연구』 제51권 1호 (2019): 1-26.
- 김용석, 송진희. “대인관계·사회적 공감 척도의 개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20권 제3호 (2018): 127-59.
- 김인숙, 이수진. “남·여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공감능력, 다문화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24권 제11호 (2017): 1-32.
- 김태완 외 3인. “다문화수용성 척도의 타당성 연구: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제11권 제1호 (2016): 57-78.
- 남윤정, 박성희. “대학생의 자이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인지, 정의, 행동 차원의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9권 제15호

(2019): 45-62.

박지윤, 박은민. “대학생의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거리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8권 제20호 (2018): 223-42.

박혜숙, 원미순. “대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 관련변인 탐색.” 『교육심리연구』 24(2) (2010): 303-25.

박홍순.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대학생 선교.” 『대학과 선교』 제16집 (2009): 39-63.

양정남 외 4인. “자기효능감, 사회복지용호태도가 사회복지전공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교육』 제16집 (2011): 24-47.

여성연, 김지연. “대학생활적응의 영향요인에 관한: 인터넷 몰입 수준, 친구관계,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0권 2호 (2015): 55-74.

유지은. “기독교 청년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 분석.” 『대학과 선교』 37집 (2018): 243-76.

윤인진. “다문화소수자에 대한 국민인식의 지형과 변화.” 『디아스포라연구』 제10권 제1호 (2016): 125-54.

윤인진, 송영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3권 1호 (2011): 143-92.

이병식, 이인서. “대학생 다문화 태도에 대한 다양성 경험과 대학의 구조적 다양성 효과 분석.” 『교육학연구』 제57권 제2호 (2019): 197-225.

이영광, 지은구. “자기효능감척도 개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6권 1호 (2017): 5-31.

정명희, 박외병. “대학생의 다문화교육경험이 사회적 거리감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충북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7(2) (2014): 81-105.

조학래. “기독교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복음과 실천』 제63집 (2019 봄): 315-46.

차슬기, 변해원. “우리나라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9권 제3호 (2018): 211-6.

356 복음과 실천(제65집, 2020년 봄)

McMillan, D. W., & Chavis, D. M.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 Psychology* vol. 14, no. 1 (1986): 6-23.

3. 미간행물

한미현.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6.